

우리는 요구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를!
 신자유주의 반대! 여성노동권 쟁취!

114주년 노동절맞이 여성행동위원회 3차모임

위원장 김대중에게 감사 : 화.수 감사사건이후, '114주년'이 '노동절' 여성노동권 (여성노동권) (여성노동권)
 " 10월 이후 - 4월을 기념하는 것보다 기념회, 준비하는 것."

김대중 부부에게 감사 - 준비, 2차

사실 4월 25일 여성행동위원회 : 아니

" 10월 - " - 7월이면

안하대 : 이정숙특위에게 강력히 제기 (이정숙특위, 강연, 영랑제)

김대중 부부에게 감사 - 김대중 [7월 25일 May-Day 기념가이드 모집
 상사노동자의 삶, 노동조합의 현실, _____]

10월, 11월 (10월 10일)

김대중 부부에게 감사 : 김대중, 김영랑에게
 일시: 2004년 4월 25일 늦은 3시

장소: 경희대학교



■ 참가단위 확인

■ 단위별 활동보고 및 계획총화

■ 논의

-430-Mayday까지의 여성주의적 실천 및 릴레이 선언 조직 (이정숙특위, 여성행동위)

-430청년학생 문화제 퍼포먼스/부스설치

-114주년 노동절맞이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여성간의 연대투쟁 상징하는 기념품 제작

김대중 부부에게 감사

430may.jinb.net

■ 결의

-재정 : 참가하는 학교별로 5만원 정도.

-평가모임 시간/장소 5월 22일, 4시.

1막. 뉴스

(조명 다 켜지고 앵커멘트만 흘러나옴)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혼과 카드빚 등의 생활고에 몰린 어머니의 동반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40대 주부가 카드빚 2천만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초등학교 6학년인 딸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식을 먹인 뒤 목졸라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귀중한 자식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는 어른들의 그릇된 사고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잔한 음악 깔리고 서서히 조명 켜지며, 옹크린 주인공을 비춘다)

(주인공 주변을 도는 서너명의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며)

(더 옹크리는 여성)

사람1 ;

사람2 ;

사람3 ;

2막. 나는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장소 : 집안)

(사람들 몰리가고, 옹크려 있던 여성 서서히 일어나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행복했던 집안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무너져 가고.

(남편과 세 아이들 등장)

(술취한 남편의 폭언, 주인공은 울고있는 세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낀다)

결국 나는 홀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3막.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길거리)

(아까 주인공을 손가락질했던 서너명의 사람들 다시 등장)

사람1 ;

사람2 ;

사람3 ;

여기저기서 거절당하는 주인공

4막. 다시 시작

(여기 잘 못쓰겠어요, 동지들이 다듬어 주세요 ^^)

그렇습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죽으려고 했던 무정한 어머니입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지 못한 못난 아내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인간이지 못했던 .(말이 잘 안이여지네요) 정말 세상은 내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꺼라는 사실을 모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어 보렵니다.

암전, 투쟁하는 여성노동자의 영상물

5막. 어렵게 시작한 간병인 일, 그러나 이 일도 쉽지 않은 않습니다.

(간병인 노조 집회)

(간병인 노동자들의 집회에 앉아 있는 주인공)

어렵게 시작한 간병인일, 이 일은 내게는 희망이었고 새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일이 있음으로서 세 아이들과 나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시간의 고된 노동,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조차 없지만, 아이들과 행복할 수 있는 내일을 그리며 하루하루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어느날 갑자기 병원문 폐쇄-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결연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막. 서울대 간병인 노조 승리하다.

뉴스 앵커 8개월간 투쟁하던 서울대 간병인 노조가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114주년 노동절맞이 여성노동자 결의대회(가)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카드빚을 비판한 40대 여성이 딸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당했다는 뉴스와 함께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빈곤을 못이긴 20대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투신을 해야만했던 비극이 올해에도 악몽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IMF때보다 더욱 처참해진 삶의 위기 속에서 민중들의 삶은 그 끝을 짐작할 수 없도록 파탄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은 더욱 빈곤하고 더욱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공공의료서비스는 축소되고 간병인의 역할은 더욱 필요해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간병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용어가 우스개소리가 될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취업을 위해 더더욱 외모가꾸기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고, 그나마 힘들게 일자리를 구해도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 잘리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 비정규직/인턴직에, 남성들의 구미를 맞추는 사무실의 꽃 혹은 심부름꾼의 역할뿐입니다.

2004년 남한사회에서 여성들은 무권리로 비정규직/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서비스의 축소에 따라 더욱 개별가정의 역할로 전가되고 있는 아픈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일에 보다 힘을 쓸 것을 요구받는 등 가사와 직장의 양립이라는 여성정책에 맞추어 이중노동을 하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러한 기만적인 '활용'을 폭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의 요구에 여성의 목소리를 전면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도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의 억압과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내는 데에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그 함성은 114주년 노동절을 맞는 이 땅의 여성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의 실천에 의해 보다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를!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2004년 4월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 114주년 노동절맞이 여성행동위원회

■□ 투쟁명칭

114주년 노동절맞이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 투쟁일시

2004년 5월 1일 12시 30분(가)

■□ 투쟁장소

마로니에 공원(가)

■□ 참가대상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실천을 함께 벌이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학생·사회단체

■□ 투쟁내용(가)

신자유주의 반대! 여성노동권쟁취!

114주년 노동절맞이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개회선포(사회자)

-민중의례

-대회사(사회자)

-보고발언1; 간병인 노조 투쟁 총화

-문화공연1; 간병인 노조 노래

-보고발언2; 여성행동위원회 활동 총화

-문화공연2; 학생마임 '인사풀어헤' : *박부지주 신민기*

-정치발언1;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보고발언3; 메이데이 여/생 활동 총화)

(문화공연3; 노가바)

-정치발언2; 여대생 취업 차별문제 해결하자

-결의문 낭독

-떨들아 일어나라 부르며 폐회

■□ 실무준비

-집회 명칭 플랑

-선전플랑

-음향 및 무대

-결의문

-유인물

-발언 및 연대사, 문화공연 섭외